

포커스-e제품

DSLR용 이미지센서 탑재한 신개념의 컴팩트 디카

세기P&C(주) DP2 카메라 발표 기자 간담회 개최

●●● 취재 | 박지연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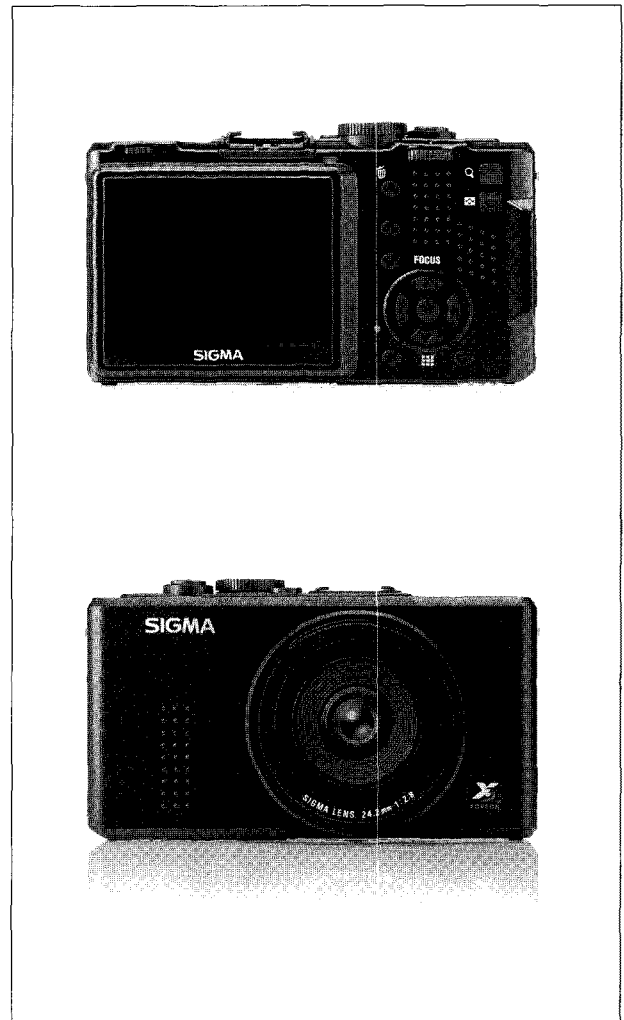
카메라 브랜드 시그마의 한국공식대리점 세기P&C(대표·이봉훈 www.saeki.co.kr)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DP2 카메라 런칭 발표회를 가졌다.

DP2는 지난해 2월 선보인 DP1의 후속모델로 4월말 예약 판매로 이미 300대를 팔아치울 만큼 인기를 끈 제품이다. 시그마 DP 시리즈는 무엇보다 이미지센서 크기가 일반 DSLR 카메라 사이즈와 동일해 모양은 콤팩트 디카지만 DSLR 카메라에서의 화질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DSLR의 고화질과 콤팩트 카메라의 휴대성을 갖춘 제품이 최근 카메라 업계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그마 DP1에 이은 DP2의 발표는 사진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기자단과 사진동호회원, 구매담당(MD)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DP2는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의 '마이크로포서즈' 카메라와 삼성디지털이미징의 하이브리드 디카 'NX' 카메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형 카메라의 원조격으로 불린다.

세기P&C의 이봉훈 대표는 "최근 카메라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탄생한 DP2는 콤팩트 디카의 휴대성과 DSLR의 화질을 모두 만족시킨 제품으로 사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며 "DP1과 비교하여 렌즈, 이미지프로세스, 조작성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 기존 DP1의 3000대 판매에 이어 DP2는 올해에만 1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조만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세기P&C에서 선보인 시그마의 DP2는 컨버전스형 카메라의 원조격으로 불린다.



▶세기P&C의 이봉훈 대표는 “DP2는 콤팩트 디카의 휴대성과 DSLR의 화질을 모두 만족 시킨 제품으로 사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말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한 시그마 DP2 카메라는 1400만 화소, 포비온(FOVEON) X3 다이렉트 이미지센서를 탑재했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DSLR급 제품에 못지 않으며 후보정을 할 때에도 원본 화질의 손상을 줄여주는 것이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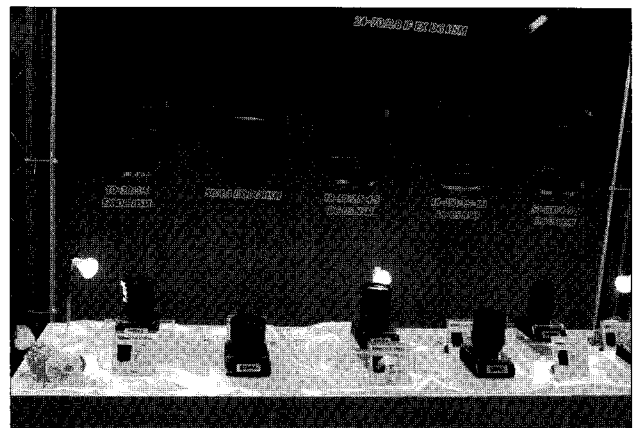
이 제품은 초점거리 24.2mm F2.8 렌즈를 장착(35mm SLR 카메라 환산 화각 41mm)하여 인물이나 스냅 사진에 적당한 화각을 지원하며, 풀 컬러 이미지센서와 TRUE II 엔진을 탑재하여 이미지 처리 품질과 컬러 재현 능력을 끌어올렸다. 성능은 물론 조작성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인터페이스 부분에 QS(Quick Setup) 버튼을 추가해 감도·측광·화이트밸런스·라이트를 손쉽게 빠르게 세팅할 수 있으며, 나만의 세팅, 컬러설정 등 메뉴를 개선하고 조작 편의성도 높였다. 가격은 80만원대 중반이다.

세기P&C 영업2팀의 구정수 과장은 “DP1에서 아쉽게 느꼈던 렌즈 스펙을 끌어올리면서 새롭게 개발한 트루II 엔진을 적용했다”며 “이전보다 다양한 구도에서 풍부한 색감의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회사측은 DP2 카메라뿐만 아니라 18-



▶모델이 시그마의 DP2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8-250mm F3.5-6.3 DC OS HSM, 50-200mm F4-5.6 DC OS HSM 등 시그마 신제품 렌즈 6종도 함께 소개됐다.

250mm F3.5-6.3 DC OS HSM, 50-200mm F4-5.6 DC OS HSM 등 시그마 신제품 렌즈 6종을 소개했다. 이들 렌즈는 HSM 초음파 고속 모터를 내장해 AF(자동초점) 속도가 빠르고 렌즈 끝에 슈퍼 멀티 레이어 코팅 처리를 하여 빛 반사를 최대한 억제, 이미지 품질을 높였다.